

# “생활비 보태려고” 일하는 고령층 65만 육박

### 광주·전남 지난해 55세 이상 취업 64만4000명...전년비 3만 ↑ 전남은 43만5000명...전체의 44.2% 차지 17개 시·도 중 최고

지난해 광주·전남 취업자 가운데 37.2%는 55세 이상으로, 이들 고령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3만명(4.9%) 증가했다.

2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고령층(55~79세) 인구는 광주 37만6000명·전남 63만2000명 등 100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99만명)에 비해 1.8%(1만7000명) 증가한 수치다.

1년 새 광주 고령층 인구는 2.4%(8800명) 증가했고, 전남은 1.4%(8700명) 늘었다.

전국 평균 고령층 증가율은 2.2%(1467만명→1499만명)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고령층 인구는 전체의 30.8% 비중

(327만명 중 101만명)을 차지했다.

특히 전남 비중은 34.5%(183만명 중 63만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광주 비중은 26.0%(144만명 중 38만명)으로, 세종(18.6%)과 경기(25.8%)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

고령층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들의 경제활동이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늘고 있다.

지난해 광주·전남 55세 이상 취업자는 64만4000명으로, 전체 지역 취업자 173만명의 37.2% 비중을 차지했다.

55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2019년 34.5%(172만4000명 중 59만4000명), 2020년 35.7%(172만

2000명 중 61만4000명), 지난해 37.2%로 해마다 늘고 있다.

고령화가 심한 전남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55세 이상 취업자 비율이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 55세 이상 취업자 수는 43만5000명으로, 전체(98만5000명)의 44.2%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지난해 경북이 처음으로 55세 이상 취업자 비중 40%대를 넘겼지만, 4년 연속 40%대를 유지하는 지역은 전남 뿐이다.

광주 55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지난해 기준 28.1%(74만5000명 중 20만9000명)로, 전국 평균(30.8%)을 밑돌았다.

전남 고령 취업자 비중은 2017년 39.8%에서 40.2%(2018년)→41.2%(2019년)→42.2%(2020년)→44.2%(지난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남 55세 이상 취업자 수도 38만1000명(2017년)→38만6000명(2018년)→40만1000명(2019년)→41만1000명(2020년)→43만5000명(지난해) 등으로 증가 추세다.

고령층 수입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은 3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2020년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층(55~79세) 국민연금 수급자는 광주 12만142명·전남 22만7757명 등 34만7899명으로, 같은 연령 인구(96만3386명)의 36.1% 비중을 차지했다.

광주 수급자 비중은 2019년 31.3%에서 이듬해 32.4%로 1.2%포인트 증가했고 전남은 같은 기간 37.9%에서 38.4%로 0.5%포인트 늘었다.

지난 2020년 기준 55~79세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은 전남이 경북(38.5%)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았다. 광주는 경기(31.9%)에 이어 17개 시·도 두 번째로 낮았다.

전국 평균 고령층 수급자 비중은 2019년 33.0%, 2020년 34.3%를 나타냈다.

한편 통계청이 올해 5월 기준으로 시행해 이날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 인구의 68.5%(1034만8000명)는 장래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비율은 10년 전 59.2%에서 올해 68.5%로 대폭 증가했다.

일하고 싶은 사유는 ‘생활비에 보탬(57.1%)’, ‘일하는 즐거움·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34.7%)’ 순으로 많았다.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인구는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장래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 수준은 150만~200만원 미만(20.9%)이 가장 많았다. 고령층 인구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은 49.3세로 집계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상생임대인에 실거주 2년·중부세 공정비율 60%

### 특례 확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2일부터 시행

전셋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 특례 확대 조치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자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경신) 계약을 체결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지원 제도를 다음 달 2일을 기해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생임대인에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최근 확대한 바 있다. 임대 개시 시점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했다.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하는 계약 체결 시점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법 시행은 다음 달 2일부터이지만 작년 12월 20일 계약 체결분까지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이다.

올해 분(11월 고지분) 중부세 부담을 담당 낮추기 위한 임시 조치도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주택분 중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100%에서 60%로 낮춘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액에 곱하는 비율이다. 즉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해 6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이런 수단 등을 활용해 올해 중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

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5년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한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20% 추가 과세하지 않는 주택 가격 기준은 현재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15% 인하한다. 발전원이 상송 부담을 줄여 불가를 안정시키려는 취지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방안도 구체화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노동이사를 임명할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추천한 2명의 근로자 중에서 정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투표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2명의 근로자 중에서 임명하기로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합뉴스



26일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오른쪽) ‘여행스케치\_남도투어적금’ 출시를 기념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호 가입자로 나서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전남 관광하고 금리 더 받으세요

### 광주은행 ‘여행스케치\_남도투어적금’ 출시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행스케치\_남도투어적금’이 출시됐다.

이 상품에 가입하고 전남 관광지 45선을 방문하면 연 최고 1.5%포인트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은 ‘여행스케치\_남도투어적금’을 출시를 기념해 26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호가입자로 나섰다

기념행사와 업무 협약식은 송중욱 은행장과 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렸다.

광주은행은 국내 여행을 위한 목적형 상품인 ‘여행스케치\_남도투어적금’을 출시하고 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또 전남 여행 테마 새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이 적금 통장 겹과 속에는 광주은행이 선정한 전남 대표 관광지 45곳이 담겨있다.

적금은 월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12개월제 또는 18개월제 가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5%(18개월제 기준, 자유식 연 2.3%)를 제공한다.

가입일로부터 만기일 전날까지 스마트뱅킹을 통해 관광지 방문 인증 때 최고 연 1.5%포인트 추가 금리를 준다.

광주은행 신용(체크)카드를 300만원 이상 사용하면 연 0.3%포인트,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상용서비스 안내 등)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모든 항목 및 안내수단에 전체 동의하는 경우 연 0.1%포인트를 제공한다.

우대금리 최고 연 1.9%포인트가 적용되면 연 4.4%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송 은행장은 “지역과 상생, 지역민과 동행의 경영이념을 근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지역 현안에 공감하고, 지역민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 광주글로벌모터스 ISO 9001 인증 획득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ISO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모든 산업 분야 및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규격을 제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인증하는 제도다.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지속해서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GGM은 이번 ISO 9001 인증 획득과 관련 최고의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과 해당 사업장 운영에 대해 국제표준 요구사항에 부합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고객·상생·신뢰경영이라는 경영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안전보건, 품질경영, 환경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일관성 있는 품질 환경 목표를 수립한 뒤 주기적인 점검 평가를 통해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태 GGM 대표이사는 “상생과 최고 품질로 자동차 생산 전문기업으로서 위상을 다진 GGM이



GGM 임직원들이 26일 열린 ISO 9001 인증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에 ISO 9001 인증을 획득한 것은 또 하나의 커다란 성과”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품질경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유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자동차를 생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금호타이어 무상점검 고속도로 휴게소 4곳

### 28~30일 함안(순천방향) 등

금호타이어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3일간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타이어 무상점검 서비스 및 안전운행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가평(춘천방향), 여주(강릉방향), 공주(당진방향), 함안(순천방향) 등 전국 4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해당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금호타이어의 전문가들로부터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 점검, 밸런스 점검 등 타이어 안전점검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타이어 안전 관리요령 안내 및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며, 방문 고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산업진흥회-조선이공대 인력난 해소 협약

한국광산업진흥회는 26일 조선이공대학교와 광주지역 청년 및 위기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인력양성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본격적인 산학협력 체계 구축과 상호협력 활성화를 통해 광융합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 내 일자리 안정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 ▲인력양성 교육과정의 교육 커리큘럼 공동 개발 및 운영 ▲인력양성 사업을 위한 교육 강사진 및 교



육장 제공 등 운영과정 협력 ▲정년창업지원·일자리사업 및 수행을 위한 협력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활동 및 연구 ▲협약기관 저변 확대를 위한 상호사업 홍보 협력 등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JB금융지주(회장 김기홍·사진)는 올해 상반기 누적 당기순이익(지배지분) 3200억원을 실현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 증가한 실적이다. 2분기 기준 당기순이익(지배지분)은 전년보다 4.9% 증가한 1532억원을 기록했다.

JB금융지주는 지배지분 ROE(자본 대비 순이익 비율) 15.2% 및 ROA 1.14%를 기록하며 최고 수준 수익성 지표를 유지했다.

올 상반기 내부등급법 도입 효과에 힘입어 보통주자본비율(잠정) 11.18%를 기록하며 지주 설립 후 그룹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1%를 웃돌았다.

경영 효율성 지표인 영업이익경비율(CIR)은 영업 수익 증대와 지속적인 비용 절감 노력의 결

과로 역대 최저치인 38.1%를 달성했다.

대내외 위험요인을 줄이며 고정이자신비율은 전년보다 0.09% 개선된 0.56%, 연체율은 0.06% 개선된 0.53%를 기록했다.

광주은행도 고물가, 고환율 등 경기 불확실성에도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을 바탕으로 견고한 실적을 시현했다.

광주은행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21.8% 증가한 1249억원을 달성했다.

JB금융그룹은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JB인베스트먼트를 자회사로 둔 종합금융그룹이다.

/백희준 기자 bhj@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12.96(+9.27)
↑ 코스닥	789.93(+0.24)
↓ 금리(국고채 3년)	3.121(-0.032)
↓ 환율(USD)	1307.60(-6.10)